

의료법 개악 저지 치협, 1인시위 재개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치협을 비롯한 범의료계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인시위'가 재개됐다.

9월 3일 재개된 1인 시위의 첫 주자는 안성모 협회장으로, 안 협회장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안 협회장은 1인 시위 재개와 관련 "정기 국회 개회에 맞춰 치협을 비롯한 범의료단체가 공조해 의료법 개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해체된 구강보건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복원 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안 협회장을 필두로 주수호 의협 회장, 유기덕 한의협 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나섰으며,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이튿날인 4일에는 이수구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의료법 개악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의료법 개정안 신중 검토를” 범대위, 국회 복지위·법사위에 건의문 전달

치협을 비롯한 범의료 4개 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주지시키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범의료 4개 단체는 9월 5일 각 단체장 명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위원들에게 보낸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건의문에서 "국회에서 한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게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선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4개 단체장들은 "지난 5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복지부가 서둘러 법률개정을 추진해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법안 심사에 앞서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보와 향후 의료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 단체장들은 "정부에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중점

관리법안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직접 관계 단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범의료계 4개 단체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범의료 4개 단체 회장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범의료계 4개 단체의 굳건한 공조로 전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건의문에서 단체장들은 복지부가 법안에 대해 공청회 등 논의 과정도 없이 서둘러 입법예고한 결과 17개 조항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돼 입법예고 내용을 정정공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졸속 추진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향후 의료체계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현 의료근간을 흔들며 자칫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많아 범의료계 4개 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마저도 이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된다 설립 기금·회비 등 집중 논의

빠르면 금년 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설립될 전망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욱)는 9월 28일 준비위원장인 김성욱 총무이사, 조영식 기획이사, 이원균 공보이사, 김영주 보험이사, 전민용 치무이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치협 회관에서 제 1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연구소 설립에 따른 조직 및 운영방안, 연구소 규정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 올해 안에 연구소 설립을 완료키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연구소가 향후 치정회 해산에 따른 정책홍보사업 등 기존 치정회의 기능을 승계하게 됨에 따라 관련 기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흡수할 것인지와 치정회 설립기금과 회비 등의 승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일단 기존 치정회 기능과 관련해서는 연구회 산하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흡수해야 한다는 안과 별도 위원회 구성없이 연구소 사업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열릴 예정인 임원연수회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치정회 설립기금과 관련해서는 치정회 청산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친 후 이를 연구소 설립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치정회 회비의 경우 '정책연구소 회비'로 명칭을 전환해 회원들의 지속적인 회비 수납을 유도함으로써 정책연구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원균 공보이사는 "치정회 회비를 정책연구소 회비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회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치의신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회원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소 조직 및 운영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연구소 규정안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김성욱 위원장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가능한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준비위는 추후 연구소 운영규정안 마련을 위한 세부작업을 거쳐 10월 정기이사회에 이를 제출, 올해 안에 연구소 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메디노블스카드 발급 적극 협력” 안성모 협회장, 외환은행 부행장 면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치협과 외환은행이 메디노블스카드 발급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9월 5일 치협회관을 예방한 김귀현 부행장을 면담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지부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리는 등 치협에서도 카드발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외환은행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귀현 부행장은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닥터론, 엔화대출 등에서 최고의 금리 혜택을 통해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날 면담에는 업무 제휴 협약서에 직접 서명한 김동기 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치협과 외환은행은 9월 6일 롯데호텔에서 한의협, 의과개원의 협의회와 함께 2만5000명이 메디노블스카드에 가입하고 결제계좌를 지정할 경우 외환카드가맹점 수수료를 2.7%에서 2.2%로 0.5% 인하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외환은행 전국 지점에서는 지점장과 팀장 등이 치과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메디노블스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외환은행은 닥터론과 엔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신규대출에 한해 올해 말까지 금리를 0.2%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또 다른 은행의 엔화대출을 외환은행의 원화대출로 전환 시 일정정도의 조건을 갖출 경우 설정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수수료, CD/ATM 마감 후 인출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전산개발을 완료한 뒤 면제할 계획이다.